

영 화

여우들, 스크린을 홀리다

이나영 '아빠가 여자를...' 남과 여 1인 2역

송윤아 '웨딩드레스' 애뜻한 모정의 눈물

전도연·김윤진·수애도 파워 넘치는 연기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웨딩드레스'



'하모니'

2010 충무로는 남자배우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대세다. 특히 올해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으면서 전쟁 영화들이 잇따라 선보일 예정으로 있어 주역급 남자배우들을 캐스팅하려는 제작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반면 남자배우들이 짝패로 출연하는 영화들이 많아지면서 여배우들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좁아지고 있는 형편.

그런 가운데 당당히 작품을 이끌며 영화를 빛내는 여배우들의 활약이 눈길을 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비공' 이후 오랜만에 영화에 출연한 이나영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에서 트랜스젠더역을 맡았다.

여자가 되기 전 딱 한번의 실수로 태어난 아홉살 된 아들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난데 없이 '아빠' 역할을 하게 된 지현 역을 맡은 이나영은 남자와 여자 1인 2역을 잘 소화해 냈다.

지난해 '시크릿'을 통해 관객을 만났던 송윤아는 7일 개봉한 '웨딩드레스'에서 애뜻한 모정을 전한다. 어린 딸을 두고 떠나야 하는 딸기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이번 영화에서 송윤아는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고운 역을 맡아 아역 탤런트 김향기와 진한 눈물 연기를 선보인다.

김기영 감독의 '하녀' 리메이크 작품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하녀'는 올 개봉작 중 드물게 여배우들이 파워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하녀'는 고 김기영 감독이 1960년에 만든 동명 영화를 임상수 감독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한 가정부가 중산층 가족을 파멸시키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칸느 영화제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전도연이 출산 후 컴백 영화로 선택, 타이틀을 하녀를 맡았다.

또 영화 '파주', '미쓰 홍당무' 등을 통해 충무로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로 떠오른 서우가 그녀와 대립각을 세우는 여주인 역으로 출연하며 최근 '여배우들'에도 출연했던 윤여정이 고참 하녀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2월 개봉을 앞둔 '하모니'는 여자 교도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로 여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영화다. 각각 사연을 갖고 있는 여죄수들이 합창단을 조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로스트'를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배우로 떠오른 김윤진이 주인공을 맡았다. 여기에 나문희, 장영남 등 연기와 배우들이 든든히 뒤를 받친다.

특히 음악 영화 담게 뮤지컬 배우 출신들이 대거 출연했다. 드라마 '환상의 커플'과 '내조의 여왕'에서 감초 역할로 많은 인기를 모았던 정수영, 영화 '삼거리 극장'에도 출연했던 박준면, '해운대'의 강예빈 등이 대표적이다.

'남은 먼곳에', '불꽃처럼 나비처럼'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한껏 몰입된 연기력을 보인 수애는 데뷔 후 처음으로 정통 스타일러물에 도전한다. 수애는 정제불멸의 한 남자에게 인질로 잡힌 가족을 구해야 하는 라디오 DJ의 사투를 그린 '심야의 FM'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 DJ 고선영 역을 맡았다.

섹시스타 엄정화 역시 스타일러 장르에 출연한다. 신인 이정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베스트셀러'는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겪는 사건들을 그린 스릴러물이다.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작가 역을 위해 최근 7~8kg를 감량하며 촬영에 한창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아스트로 보이
(아톰의 귀환)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데즈카 오사무 원작의 '철완 아톰'(1952)의 장편 3D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미국, 영국 등 다국적 프로젝트다.

메트로 시티 최고의 두뇌를 지닌 텐마 박사는 에너지를 활용을 실험을 하다 사고로 아들을 잃는다. 자신의 실수로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던 텐마 박사는 아톰 토비의 DNA를 이식해 인간의 감성과 하이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최

애니메이션 '아톰'

장편 3D 버전 변신

조민기 목소리 연기

고의 로봇 아스트로를 창조한다.

한편 메트로 시티의 스톤 총리는 아스트로의 힘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아스트로의 에너지를 착취하려 하고 군대를 동원해 공격을 시작한다.

'식스 센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레디 하이모어, 니콜라스 케이지, 도널드 서덜랜드 등 스타급 연기자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으며 한국어 더빙판에는 조민기·유승호·남지현·유세윤이 참여했다.

1952년 첫선을 보인 고전적인 캐릭터 아톰을 3D 기술로 구현해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www.kjhr.com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본 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영 / 화 / 안 / 내

영화에 빠지는 즐거움

메가박스

1관	용서는 없다 (18세)	최고급관
2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12세)	
3관	설복음즈 (12세)	
4관	웨딩드레스 (연제)	
5관	전우치 (12세)	
6관	전우치 (12세) / 용서는 없다 (18세)	
7관	아스트로 보이 - 아톰의 귀환 (연제)	
8관	더로드 (15세)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 (12세)	
10관	아바타 (12세)	

• 무료주차 3시간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 단원역극사거리 ♥에메 1544-0600

컬럼버스시네마

1관	웨딩드레스 (연제)
2관	설복음즈 (12세)
3관	엘렌과 슈퍼밴드2 (연제) / 전우치 (12세)
4관	전우치 (12세)
5관	아스트로 보이 - 아톰의 귀환 (연제)
6관	더로드 (15세)
7관	용서는 없다 (18세)
8관	아바타 (12세) /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12세)
9관	파라노말 액티비티 (12세)
10관	아바타 (12세)

월드시네마 영화시영 • 전화: www.joycine.com / 1588-7941
상무영 (상무영점과 여대시) 여대영 (무의역영점)

1588-7941 상영권료 별도 (1번 or 2번) → 0번

하미시네마

1관	아스트로 보이 - 아톰의 귀환 (연제)
2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12세)
3관	더로드 (15세) / 설복음즈 (12세)
4관	파라노말 액티비티 (12세)
5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12세)
6관	웨딩드레스 (연제)
7관	아바타 (12세)
8관	아바타 (12세)
9관	전우치 (12세)
10관	용서는 없다 (18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상영
• 이동통신사 & OK 카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69-5757 • 하이 볼링장 262-0925
• 하이 골프장 251-5060 • 하이 당구장

전세계를 사로잡은 인류 마지막 사랑!

고려시영 고려극장 • www.hamichinema.co.kr / 1588-9120
전대무론 하미시포박스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아바타 (12세)
2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12세)
3관	용서는 없다 (18세)
4관	웨딩드레스 (연제) / 파라노말 액티비티 (12세)
5관	설복음즈 (12세) / 더로드 (15세)
6관	아톰의 귀환 (연제) / 웨딩드레스 (연제)
7관	전우치 (12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독자 사우나 (오전5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rus.co.kr / 1544-0070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12세)
2관	아바타 (12세)
3관	아바타 (12세)
4관	용서는 없다 (18세)
5관	설복음즈 (12세)
6관	용서는 없다 (18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거단지, 일광권 구매 고객에 한함)

녀석어오고 화려한 로맨스는 갖다

아빠가 여자를 좋아해

최고의 기쁨 • www.primsinema.com / www.jellicinema.co.kr •
종로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 ♥